치유 은사와 치유집회

마치 병원 응급환자실과 같은 한국 어느 큰 교회의 정기 치유집회 광경

성령의 치유(治癒) 은사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 오해가 있다.

첫째는 질병 치료는 의료기관의 몫이지 교회가 관여할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은 없다는 오해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그 후의 과정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이신론(理神論) 입장인데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이런 오해를 한다.

둘째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병을 다 치유 해주신다는 오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출 15:26)이란 뜻은 하나님이 항상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치료해주신 예도 많지만 치료해주시지 않으신 예도 나온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도바울이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또는 사단의 사자라고 한 질병이 그에게서 떠나도록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구했으나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는 말씀만 주셨다.(고후 12:7-9) 또 바울의 기도로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나 디모데에게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명하기도 했다.(딤전 5:23)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가 병 낳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성경이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약 5:16)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의 예처럼 주께서 다 치유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주님의 뜻에 따라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더 살게도 하시며(왕하 20:6), 혹 죽었던 사람들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살리시기도 하신다.(왕상 17:17-24, 왕하 4:32-37, 막 5:21-43, 눅 8:43-56, 눅 7:11-17, 요 11:1-44)

특별히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마 11:5)고 했으며 참으로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 4:23)고 했고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일을 행했다.(마 10:1-8) 그러나 주님이 만나신 병든 자마다 모두 다 고쳐주신 것은 아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治癒)의 이적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시를 확증하는 신임장과 같은 것이었다. 또한 일종의 천국 맛보기였다.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른 상태는 더 이상 병든 것이나 죽음과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적 이적(apostolic miracles)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치유 이적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성령의 치유 은사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 시대에도 주께서 원하시면 기도의 응답으로 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경대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치유 자체에 집착하거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거부한다. 또한 건전한 신앙의 교회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 집회'라는 말도 쓰지 말아야 한다.

공적으로 정한 예배나 기도회 때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중 주께서 필요하시면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집회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도 공동체 전체가 하여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병이 고쳐지는 듯한 오해를 할 만한 상황을 연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글쓴 이 / 이승구(합동신대원대 교수)